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요한복음 36 주차 (15:9-27)

(2015년 9월 27일 - 2015년 10월 3일)

(제3권 36호)



Missions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제 3 권-제 36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9 월 27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구라 부르는 사람들 (주일)

오늘의 본문 (요 15:9~17)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1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12.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 너희가 나의 명하는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17.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원문해석하기

- (9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같이 (Καθὼς ἠγάπησέν με ὁ πατήρ,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καὶ γὼ ὑμᾶς ἠγάπησα·)
나의 사랑 안에 머물라 (μείνατε ἐν τῇ ἀγάπῃ τῇ ἐμῇ.)
- (10절) 만약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ἐὰν τὰς ἐντολάς μου τηρήσητε,
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될 것이다 (μενεῖτε ἐν τῇ ἀγάπῃ μου.)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오고 내가 그의 사랑 안에 머문 것같이
(καθὼς ἐγὼ τὰς ἐντολάς τοῦ πατρὸς μου τηρήρηκα καὶ μένω αὐτοῦ ἐν τῇ ἀγάπῃ.)
-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해왔다 (Ταῦτα λελάληκα ὑμῖν)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도록
(ἵνα ἡ χαρὰ ἡ ἐμὴ ἐν ὑμῖν ἦ καὶ ἡ χαρὰ ὑμῶν πληρωθῇ.)
- (12절) 나의 계명은 이것이다 (Αὕτη ἐστὶν ἡ ἐντολὴ ἡ ἐμῇ)
그 결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한다 (ἵνα ἀγαπᾶτε ἀλλήλους καθὼς ἠγάπησα ὑμᾶς)
- (13절) 이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진 것은 없다 (μείζονα ταύτης ἀγάπην οὐδεὶς ἔχει)
그 결과 어떤 이가 그의 친구를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위치시킨다 (내어 놓는다).
(ἵνα τις τὴν ψυχὴν αὐτοῦ θῇ ὑπὲρ τῶν φίλων αὐτοῦ.)
- (14절)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Ὑμεῖς φίλοι μου ἐστέ)
만약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행한다면
(ἐὰν ποιῆτε ἃ ἐγὼ ἐντέλλομαι ὑμῖν.)
- (15절)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종으로 말하지 않겠다 (οὐκέτι λέγω ὑμᾶς δούλους,
왜냐하면 종은 그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ὅτι ὁ δούλος οὐκ οἶδεν τί ποιεῖ αὐτοῦ ὁ κύριος·)

-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러 왔다 (ὁμοῖς δὲ εἶρηκα φίλους,
 왜냐하면 내가 나의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였다
 (ὅτι πάντα ἃ ἤκουσα παρὰ τοῦ πατρός μου ἐγνώρισα ὑμῖν.)
- (16절) 너희들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οὐχ ὑμεῖς με ἐξελέξασθε,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고 너희들을 세웠다 (ἀλλ' ἐγὼ ἐξελέξαμην ὑμᾶς καὶ ἔθηκα ὑμᾶς)
 너희가 떠나 열매를 맺도록 (ἵνα ὑμεῖς ὑπάγητε καὶ καρπὸν φέριτε)
 그리고 너희의 열매가 [너희 안에] 머물도록 (καὶ ὁ καρπὸς ὑμῶν μῆνη)
 그 결과 너희들이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께] 구하면
 (ἵνα ὅτι ἂν αἰτήσητε τὸν πατέρα ἐν τῷ ὀνόματί μου)
 그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δοῦ ὑμῖν.)
-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한다 (ταῦτα ἐντέλλομαι ὑμῖν,
 너희가 서로 사랑하도록 (ἵνα ἀγαπᾶτε ἀλλήλους.)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4~15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행한다면,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종으로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종은 그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러왔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알게 하였다.”

14 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물론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행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14 절에 쓰인 동사가 모두 현재형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예수님이 명령하는 일을 제자들이 지금 행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친구라는 말입니다.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뭔가를 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미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고별사에서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쉽게 단정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 보이게 됩니다. ‘행한다’라는 말만 나오면 우리는 노력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생각부터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노력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 내라고 명하지 않았습니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리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니다.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명령을 지켰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그들이 이미 예수님의 친구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 장 1 절부터 시작된 고별사에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명령하신 것은 ‘내 안에 거하라!’라는 명령 단 하나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말

싫어지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을 지우고 계시는 것도 아니지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다 첫 번째 고별사를 하시던 순간에도 예수님 앞에서 길을 보여 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던 그들, 그리고 마침내는 그 모진 수난을 당하는 예수님을 버려두고 모두 도망갈 그들, 심지어 그의 눈 앞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할 베드로까지 예수님은 모두 자기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친구로 불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선언하시는 것 그 자체가 복음인 것이지요.

15 절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병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A: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종으로 말하지 않겠다 (οὐκέτι λέγω ὑμᾶς δούλους.)

B: 왜냐하면 종은 그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ὅτι ὁ δούλος οὐκ οἶδεν τί ποιεῖ αὐτοῦ ὁ κύριος.)

A: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러 왔다 (ὁμῶς δὲ εἴρηκα φίλους.)

B: 왜냐하면 내가 나의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였다

(ὅτι πάντα ἃ ἤκουσα παρὰ τοῦ πατρὸς μου ἐγνώρισα ὑμῖν.)

예수님은 종과 친구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종은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자신의 의지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란 서로 대등한 관계로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까지 친구로 불러왔고 종으로 부르지는 않았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종이 아닌 친구라는 증거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들을 제자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친구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친구라고 하면 그냥 친한 사이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란 단순히 서로가 잘 아는 사이,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내는 사이, 흥허물도 터놓는 사이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13 절에서 어떤 이가 친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는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처럼 친구를 위해 그 친구의 위치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 놓는 사이, 그것이 예수님이 정의하는 친구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말하는 친구의 범위를 한참 넘어선 관계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이미 자기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예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 놓지 않아도, 그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것만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친구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친구 맺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구원 받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즉,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 자격없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예수님의 친구라고 감히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먼저 자기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자신이 규정한 친구로서의 요건을 스스로 충족시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이나 세리나 병든 자들이나 창녀들이 먼저 예수님을 위해 헌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셨고 그들을 위해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것이지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친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우리 목숨을 버릴 수도, 예수님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친구로 불러 주심에 감사할 따름이지요. 바리새인들은 늘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마 11:19).

당신은 어떠한가요? 예수님이 당신의 친구가 되어 당신 대신에 죽음의 자리에 서서 심판 받으시고, 아무 공로도 없이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사실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선택과 부르심 (월요일)

오늘의 본문 (요 15:9~17)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1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12.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1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 너희가 나의 명하는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좋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17.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원문해석하기

- (9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같이 (Καθὼς ἠγάπησέν με ὁ πατήρ,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καὶ γὼ ὑμᾶς ἠγάπησα·)
나의 사랑 안에 머물라 (μείνατε ἐν τῇ ἀγάπῃ τῇ ἐμῇ.)
- (10절) 만약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킨다면 (ἐὰν τὰς ἐντολάς μου τηρήσητε,
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될 것이다 (μενεῖτε ἐν τῇ ἀγάπῃ μου.)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오고 내가 그의 사랑 안에 머문 것같이
(καθὼς ἐγὼ τὰς ἐντολάς τοῦ πατρὸς μου τηρήρηκα καὶ μένω αὐτοῦ ἐν τῇ ἀγάπῃ.)
-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해왔다 (Ταῦτα λελάληκα ὑμῖν)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도록
(ἵνα ἡ χαρὰ ἡ ἐμὴ ἐν ὑμῖν ἦ καὶ ἡ χαρὰ ὑμῶν πληρωθῇ.)
- (12절) 나의 계명은 이것이다 (Αὕτη ἐστὶν ἡ ἐντολὴ ἡ ἐμῇ)
그 결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한다 (ἵνα ἀγαπᾶτε ἀλλήλους καθὼς ἠγάπησα ὑμᾶς)
- (13절) 이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진 것은 없다 (μείζονα ταύτης ἀγάπην οὐδεὶς ἔχει)
그 결과 어떤 이가 그의 친구를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위치시킨다 (내어 놓는다).
(ἵνα τις τὴν ψυχὴν αὐτοῦ θῇ ὑπὲρ τῶν φίλων αὐτοῦ.)
- (14절)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Ὑμεῖς φίλοι μου ἐστέ)
만약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행한다면
(ἐὰν ποιῆτε ἃ ἐγὼ ἐντέλλομαι ὑμῖν.)
- (15절)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종으로 말하지 않겠다 (οὐκέτι λέγω ὑμᾶς δούλους,
왜냐하면 좋은 그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ὅτι ὁ δούλος οὐκ οἶδεν τί ποιεῖ αὐτοῦ ὁ κύριος·)

-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러 왔다 (ὁμοῖς δὲ εἶρηκα φίλους.)
 왜냐하면 내가 나의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였다
 (ὅτι πάντα ἃ ἤκουσα παρὰ τοῦ πατρὸς μου ἐγνώρισα ὑμῖν.)
- (16절) 너희들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οὐχ ὑμεῖς με ἐξελέξασθε.)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고 너희들을 세웠다 (ἀλλ' ἐγὼ ἐξελέξαμην ὑμᾶς καὶ ἔθηκα ὑμᾶς)
 너희가 떠나 열매를 맺도록 (ἵνα ὑμεῖς ὑπάγητε καὶ καρπὸν φέρητε)
 그리고 너희의 열매가 [너희 안에] 머물도록 (καὶ ὁ καρπὸς ὑμῶν μῆνη.)
 그 결과 너희들이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아버지를 [께] 구하면
 (ἵνα ὅτι ἂν αἰτήσητε τὸν πατέρα ἐν τῷ ὀνόματί μου)
 그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δοῦ ὑμῖν.)
-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한다 (ταῦτα ἐντέλλομαι ὑμῖν.)
 너희가 서로 사랑하도록 (ἵνα ἀγαπᾶτε ἀλλήλους.)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6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또 그들을 세웠다고 하십니다.

‘선택하였다’라는 의미의 헬라어는 ‘에클레고 (ἐκλέγω)’인데 이는 군중들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해서 불러내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출신으로 주로 갈릴리 벳세다에서 살았으며 그들의 직업은 어부, 세리, 열심당원 등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에센파 사람들처럼 경건 생활을 훈련해 온 사람들도 아니지요. 게다가 사두개인처럼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그들을 부르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평생을 고향에서 그럭저럭 살다가 이름 없이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불러 내셨지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내어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터전, 자신의 직업, 자신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보내심을 받게 되는 자들이 된 것이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가 살던 곳은 바벨론 근처 갈데아 지방입니다. 갈데아의 우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이름은 ‘갈데아의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갈데아, 세상의 물질 문명과 우상이 지배하는 그곳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떠나 온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일방적으로 다음과 같은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창 12:1-3).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기 전에는 바벨론 지방의 다른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집안을 보면 남들이 알아 줄만한 것도 아무 것도 없

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가 후에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이른 엄청난 물질적 부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에둘러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증거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아브라함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 보면 그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할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 당시 물질적 풍요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뒤를 이을 후손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천적으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내 사라를 만나 100세가 되던 해까지 후계자 문제로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00세가 되어 적자인 이삭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진짜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삭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니까요.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그 열매가 그들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할까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열매란 그들에게 설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것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제자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준 성령의 은사는 모두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서로 온전히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절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지금 당신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기도 제목이 곧 그 사람의 세계관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그 사람의 신앙 수준 나아가 신앙의 관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대부분의 기도가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의 사업의 성공을 구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물질이 자신의 중심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에만 집중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바알신으로 착각하며 섬기는 것일 수도 있지요. 자식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왕이면 자식이 명문대학에 진학해서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엄밀히 말해 그것은 자기 마음의 중심에 자식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아이테오(αἰτέω)하면), 그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라는 말씀은 세상적 복을 갈망하는 우리들의 은밀한 정욕을 채워주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와 확연히 구별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현재의 고난에서 벗어나도록 가르칩니다. 선한 일을 하고 기도하거나 참선하면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 자신의 선한 뜻을 알려 주신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든 편린들이 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삶의 자락 자락이 전부 다 성령을 체험하는 기회인 것이지요. 성령님은 우리가 힘들 때면 어디론가 떠나 계시다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평안을 회복하면 도로 나타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난의 때이든 기쁨의 때이든 상관없이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를 깨우치는 분이

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히 동행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것이지요. 당신은 성령님이 정말 자신과 함께 함을 알고 계시나요? 그분에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17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이것을 명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땅에 남겨진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성경의 절대 가치입니다. 앞에서 누누히 강조했지만 그 사랑의 원동력은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분이 사랑할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형편과 무관하게 이웃을 향한 사랑의 눈을 뜨게 해주지요. 만약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사랑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한다 (화요일)

오늘의 본문 (요 15:18~27)

18.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9.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0.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21.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 이니라
22.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23.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24.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25.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 니라
26.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27.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원문이해하기

- (18절) 만약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Εἰ ὁ κόσμος ὑμᾶς μισεῖ)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γινώσκετε ὅτι ἐμὲ πρῶτον ὑμῶν μεμίσηκεν.)
- (19절) 만약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존재한다면 (εἰ ἐκ τοῦ κόσμου ἦτε),
세상이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사랑할 것이다 (ὁ κόσμος ἂν τὸ ἴδιον ἐφίλει)
그러나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존재하지 않고 (ὅτι δὲ ἐκ τοῦ κόσμου οὐκ ἐστέ)
내가 너희를 이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기 때문에 (ἀλλ' ἐγὼ ἐξελεξάμην ὑμᾶς ἐκ τοῦ κόσμου.)
그것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διὰ τοῦτο μισεῖ ὑμᾶς ὁ κόσμος.)
- (20절)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μνημονεύετε τοῦ λόγου οὗ ἐγὼ εἶπον ὑμῖν·)
종이 그의 주인보다 위대하지 않다 (οὐκ ἔστιν δοῦλος μείζων τοῦ κυρίου αὐτοῦ.)
만약 세상이 나를 핍박하였다면 (εἰ ἐμὲ ἐδίωξαν),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καὶ ὑμᾶς διώξουσιν·)
만약 나의 말을 지켰다면 (εἰ τὸν λόγον μου ἐτήρησαν),
그들이 너희의 것들도 지킬 것이다 (καὶ τὸν ὑμέτερον τηρήσουσιν.)
- (21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 모든 일들을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ἀλλὰ ταῦτα πάντα ποιήσουσιν εἰς ὑμᾶς διὰ τὸ ὄνομά μου.)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보내신 이를 모르기 때문이다 (ὅτι οὐκ οἴδασιν τὸν πέμψαντά με.)

- (22절) 만약내가 와서 저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εἰ μὴ ἦλθον καὶ ἐλάλησα αὐτοῖς)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ἀμαρτίαν οὐκ εἶχουσιν)
 그러나 지금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핑계가 없을 것이다
 (νῦν δὲ πρόφρασιν οὐκ ἔχουσιν περὶ τῆς ἀμαρτίας αὐτῶν.)
-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한 나의 아버지를 미워한다 (ὁ ἐμὲ μισῶν καὶ τὸν πατέρα μου μισεῖ.)
- (24절) 만약내가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은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않았다면
 (εἰ τὰ ἔργα μὴ ἐποίησα ἐν αὐτοῖς ἃ οὐδεὶς ἄλλος ἐποίησεν.)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ἀμαρτίαν οὐκ εἶχουσιν)
 그러나 지금 그들은 나와 나의 아버지를 보아왔고 미워해왔느니라
 (νῦν δὲ καὶ ἐώρακασιν καὶ μεμισήκασιν καὶ ἐμὲ καὶ τὸν πατέρα μου.)
- (25절) 그러나 그 결과 그의 율법에 기록된 말이 성취되었다
 (ἄλλ' ἵνα πληρωθῇ ὁ λόγος ὁ ἐν τῷ νόμῳ αὐτῶν γεγραμμένος)
 그들이 이유없이 나를 미워한다 (ὅτι ἐμίσησάν με δωρεάν.)
- (26절) 언제든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옹호자)가 올 때
 (Ὅταν ἔλθῃ ὁ παράκλητος ὃν ἐγὼ πέμψω ὑμῖν παρὰ τοῦ πατρὸς.)
 아버지로부터 진리의 영, 그가 나에게 대하여 증거할 것이다
 (τὸ πνεῦμα τῆς ἀληθείας ὃ παρὰ τοῦ πατρὸς ἐκπορεύεται, ἐκεῖνος μαρτυρήσει περὶ ἐμοῦ.)
- (27절) 그리고 너희도 증거한다 (καὶ ὑμεῖς δὲ μαρτυρεῖτε.)
 왜냐하면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ὅτι ἀπ' ἀρχῆς μετ' ἐμοῦ ἔστε.)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8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예수님은 “만약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이라고 가정하십니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를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일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일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랬기에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났으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었고,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로 인해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를 핍박하다 뒤늦게 예수님을 알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도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²²저희가 히브리인이냐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나도 그러하며 ²³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군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번 죽을 뻔 하였으니 ²⁴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때를 다섯번 맞았으며 ²⁵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 하는데 일주야를 깊은에서 지냈으며 ²⁶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²⁷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후 11:22-27).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제자들이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예수님은 이에 대한 답으로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닥친 고난을 통해 예수님이 왜 십자가 고난을 당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은 이런 제자들을 미워하게 되는 걸까요?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19 절을 읽으십시오.

“만약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존재하면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존재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이 세상으로부터 선택했기 때문에 (불러내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내기 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였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은 결코 그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세상에 속했는데도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자기 학대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나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미워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대립하기에 세상은 그들을 자기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세상인 걸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누구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창녀, 세리, 문둥병자 등 소위 세상의 실패자들이나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세상이 아닌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어둠에 있는 자들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하자가 많은 사람은 당연히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짓을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그들이야말로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꺼리는 자들이며 따라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일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어둠에 거하며 빛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스스로의 노력으로 늘 의로움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으로 불러낸 자들을 대부분이 세리, 거지, 장님, 병든 자, 귀신들린 자,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들과는 달리 이들은 오히려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됩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점점 예수님을 미워했으며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게 되지요.

그렇기에 이들은 같은 이유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세상으로부터 떠나온 자들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여 세상과 협력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이유가 없을 텐데 세상에서 나와 세상과 대립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를 드러내게 되면 세상이 스스로 쌓은 의로운 삶이 위선으로 폭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야 스스로의 의로 하나님 앞에 당당해 지려는 그들의 행위가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세상과 대립하여 오로지 그들이 죽인 그 예수를 믿어야 만 의롭게 된다고 하니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둘째는 세상으로부터 제자들을 선택해서 불러낸 자가 다름아닌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은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들이 죽인 예수가 제자들을 택했기 때문이지요. 예수라는 존재는 세상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게 하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앞에만 서면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해 마지 않는 자신들의 의가 배설물이 되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쌓아온 의가 그저 배설물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이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자기의 의를 계속 주장하고자 예수님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계속 세상에 동화되어 산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핍박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낸 이유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¹⁰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허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허를 얻은 자니라 (벧전 2:9-10).

베드로는 우리가 택한 백성이 된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왜 우리를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를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누구를 향해 선전해야 할까요? 바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믿는 자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있기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여전히 세상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나요? 만약에 당신이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핍박이 없다면 그 이유가 당신이 세상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세상이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수요일)

오늘의 본문 (요 15:18~27)

18.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9.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0.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21.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22.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23.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24.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25.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26.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27.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원문이해하기

- (18절) 만약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Εἰ ὁ κόσμος ὑμᾶς μισεῖ)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γινώσκετε ὅτι ἐμὲ πρῶτον ὑμῶν μεμίσηκεν.)
- (19절) 만약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존재한다면 (εἰ ἐκ τοῦ κόσμου ἦτε),
세상이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사랑할 것이다 (ὁ κόσμος ἂν τὸ ἴδιον ἐφίλει)
그러나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존재하지 않고 (ὅτι δὲ ἐκ τοῦ κόσμου οὐκ ἐστέ)
내가 너희를 이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기 때문에 (ἀλλ' ἐγὼ ἐξελεξάμην ὑμᾶς ἐκ τοῦ κόσμου.)
그것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διὰ τοῦτο μισεῖ ὑμᾶς ὁ κόσμος.)
- (20절)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μνημονεύετε τοῦ λόγου οὗ ἐγὼ εἶπον ὑμῖν·)
종이 그의 주인보다 위대하지 않다 (οὐκ ἔστιν δοῦλος μείζων τοῦ κυρίου αὐτοῦ.)
만약 세상이 나를 핍박하였다면 (εἰ ἐμὲ ἐδίωξαν),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καὶ ὑμᾶς διώξουσιν·)
만약 나의 말을 지켰다면 (εἰ τὸν λόγον μου ἐτήρησαν),
그들이 너희의 것들도 지킬 것이다 (καὶ τὸν ὑμέτερον τηρήσουσιν.)
- (21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 모든 일들을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ἀλλὰ ταῦτα πάντα ποιήσουσιν εἰς ὑμᾶς διὰ τὸ ὄνομά μου.)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보내신 이를 모르기 때문이다 (ὅτι οὐκ οἶδασιν τὸν πέμψαντά με.)

- (22절) 만약내가 와서 저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εἰ μὴ ἦλθον καὶ ἐλόλησα αὐτοῖς)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ἀμαρτίαν οὐκ εἶχουσιν)
 그러나 지금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핑계가 없을 것이다
 (νῦν δὲ πρόφρασιν οὐκ ἔχουσιν περὶ τῆς ἀμαρτίας αὐτῶν.)
-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한 나의 아버지를 미워한다 (ὁ ἐμὲ μισῶν καὶ τὸν πατέρα μου μισεῖ)
- (24절) 만약내가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은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않았다면
 (εἰ τὰ ἔργα μὴ ἐποίησα ἐν αὐτοῖς ἃ οὐδεὶς ἄλλος ἐποίησεν.)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ἀμαρτίαν οὐκ εἶχουσιν)
 그러나 지금 그들은 나와 나의 아버지를 보아왔고 미워해왔느니라
 (νῦν δὲ καὶ ἐωράκασιν καὶ μεμισήκασιν καὶ ἐμὲ καὶ τὸν πατέρα μου.)
- (25절) 그러나 그 결과 그의 율법에 기록된 말이 성취되었다
 (ἄλλ' ἵνα πληρωθῇ ὁ λόγος ὁ ἐν τῷ νόμῳ αὐτῶν γεγραμμένος)
 그들이 이유없이 나를 미워한다 (ὅτι ἐμίσησάν με δωρεάν.)
- (26절) 언젠가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옹호자)가 올 때
 (Ὅταν ἔλθῃ ὁ παράκλητος ὃν ἐγὼ πέμψω ὑμῖν παρὰ τοῦ πατρὸς.)
 아버지로부터 진리의 영, 그가 나에게 대하여 증거할 것이다
 (τὸ πνεῦμα τῆς ἀληθείας ὃ παρὰ τοῦ πατρὸς ἐκπορεύεται, ἐκεῖνος μαρτυρήσει περὶ ἐμοῦ.)
- (27절) 그리고 너희도 증거한다 (καὶ ὑμεῖς δὲ μαρτυρεῖτε.)
 왜냐하면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ὅτι ἀπ' ἀρχῆς μετ' ἐμοῦ ἔστε.)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0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종이 그의 주인보다 위대하지 않다. 만약 세상이 나를 핍박하였다면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만약 나의 말을 지켰다면 그들이 너희들의 것(말)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은 “종이 그의 주인보다 위대하지 않다”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이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과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셨는지를 살펴 보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28절, 요한복음 13장 12~17절을 보겠습니다.

“¹⁶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¹⁷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¹⁸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¹⁹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²⁰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²¹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²²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²³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²⁴"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²⁵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²⁶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²⁷내가 너희에게 어두운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²⁸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마10:16-28).

⁴²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⁴³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⁴⁴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⁴⁵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⁴⁶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⁴⁷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요 13:12-17).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게 될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중에 이 말씀을 하신 걸로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이 말씀을 하신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 두 기록 모두 제자들에게 닥칠 운명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처럼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죽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실제로 그 예언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제자들도 미워한 것이지요. 또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사랑과 용서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셨듯이 제자들도 용서하게 될 거라는 말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 본을 몸소 보여 주신 것이지요.

다시 요한복음 20 절에 예수님은 두가지 가정을 하십니다. 첫 번째 가정은 “세상이 나를 핍박하였다면”이라는 가정인데 이 가정의 결과는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당연히 핍박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이 일은 조금 있다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예언인 셈입니다. 두 번째 가정은 “만약 나의 말을 지켰다면”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니다. 아니 지킬 수가 없었지요. 따라서 두번째 가정은 100% 불가능한 것을 가정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매우 가슴아픈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고기를 잡다가, 세금을 거두다가, 또는 독립 운동을 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니다. 그들은 어느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그저 그런 평범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선택하여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열 둘을 세워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살던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장밋빛 탄탄대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난과 핍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당시 예수님이나 제자들의 심정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받으며 고난을 당할 것이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담담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요즈음 우리들 중에는 소위 말하는 번영 신학이나 기복 신앙을 추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배를 채우고 인간의 명예를 높이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어려운 상황이나 고난에 처하면 당연히 그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에서 복을 받아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명예와 권세까지도 누리게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고별사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입니다. 물론 세상이 핍박하지도 않는데 일부러 머리를 들이 밀며 때려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세상으로부터 핍박 당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 일을 찾아서 할 필요도 없지요. 하지만 믿는 사람이라며 싫든 좋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만이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배타적이고 편협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싫어서 이것도 진리이고 저것도 진리라는 식의 종교 다원주의에 빠지거나 또는 어떤 한 성경 해석도 일리가 있으므로 모든 것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지는 것도 지양해야 합니다. 종교 다원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로 하여금 교묘한 방법으로 핍박을 피할 수 있도록 세상과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진리를 왜곡하여 예수님이 유일한 길임을 가르치고 지키지 못하게 하지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고 계신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죄입니다 (목요일)

오늘의 본문 (요 15:18~27)

18.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9.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0.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21.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 이니라
22.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23.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24.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25.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 니라
26.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27.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원문이해하기

- (18절) 만약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Εἰ ὁ κόσμος ὑμᾶς μισεῖ)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γινώσκετε ὅτι ἐμὲ πρῶτον ὑμῶν μεμίσηκεν.)
- (19절) 만약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존재한다면 (εἰ ἐκ τοῦ κόσμου ἦτε),
세상이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사랑할 것이다 (ὁ κόσμος ἂν τὸ ἴδιον ἐφίλει)
그러나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존재하지 않고 (ὅτι δὲ ἐκ τοῦ κόσμου οὐκ ἐστέ)
내가 너희를 이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기 때문에 (ἀλλ' ἐγὼ ἐξελεξάμην ὑμᾶς ἐκ τοῦ κόσμου.)
그것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διὰ τοῦτο μισεῖ ὑμᾶς ὁ κόσμος.)
- (20절)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μνημονεύετε τοῦ λόγου οὗ ἐγὼ εἶπον ὑμῖν·)
종이 그의 주인보다 위대하지 않다 (οὐκ ἔστιν δοῦλος μείζων τοῦ κυρίου αὐτοῦ.)
만약 세상이 나를 핍박하였다면 (εἰ ἐμὲ ἐδίωξαν),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καὶ ὑμᾶς διώξουσιν·)
만약 나의 말을 지켰다면 (εἰ τὸν λόγον μου ἐτήρησαν),
그들이 너희의 것들도 지킬 것이다 (καὶ τὸν ὑμέτερον τηρήσουσιν.)
- (21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 모든 일들을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ἀλλὰ ταῦτα πάντα ποιήσουσιν εἰς ὑμᾶς διὰ τὸ ὄνομά μου.)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보내신 이를 모르기 때문이다 (ὅτι οὐκ οἴδασιν τὸν πέμψαντά με.)

- (22절) 만약내가 와서 저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εἰ μὴ ἦλθον καὶ ἐλάλησα αὐτοῖς)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ἀμαρτίαν οὐκ εἶχουσιν)
 그러나 지금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핑계가 없을 것이다
 (νῦν δὲ πρόφρασιν οὐκ ἔχουσιν περὶ τῆς ἀμαρτίας αὐτῶν.)
-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한 나의 아버지를 미워한다 (ὁ ἐμὲ μισῶν καὶ τὸν πατέρα μου μισεῖ.)
- (24절) 만약내가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은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않았다면
 (εἰ τὰ ἔργα μὴ ἐποίησα ἐν αὐτοῖς ἂ οὐδεὶς ἄλλος ἐποίησεν.)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ἀμαρτίαν οὐκ εἶχουσιν)
 그러나 지금 그들은 나와 나의 아버지를 보아왔고 미워해왔느니라
 (νῦν δὲ καὶ ἐώρακασιν καὶ μεμισήκασιν καὶ ἐμὲ καὶ τὸν πατέρα μου.)
- (25절) 그러나 그 결과 그의 율법에 기록된 말이 성취되었다
 (ἄλλ' ἵνα πληρωθῇ ὁ λόγος ὁ ἐν τῷ νόμῳ αὐτῶν γεγραμμένος)
 그들이 이유없이 나를 미워한다 (ὅτι ἐμίσησάν με δωρεάν.)
- (26절) 언젠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옹호자)가 올 때
 (Ὅταν ἔλθῃ ὁ παράκλητος ὃν ἐγὼ πέμψω ὑμῖν παρὰ τοῦ πατρὸς.)
 아버지로부터 진리의 영, 그가 나에게 대하여 증거할 것이다
 (τὸ πνεῦμα τῆς ἀληθείας ὃ παρὰ τοῦ πατρὸς ἐκπορεύεται, ἐκεῖνος μαρτυρήσει περὶ ἐμοῦ.)
- (27절) 그리고 너희도 증거한다 (καὶ ὑμεῖς δὲ μαρτυρεῖτε.)
 왜냐하면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ὅτι ἀπ' ἀρχῆς μετ' ἐμοῦ ἔστε.)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1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결국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핍박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제자들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그런 일이 자행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그들이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 교회 당시 ‘그리스도인’, 또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여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사도행전 11 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아시다시 피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데 증인으로 섰던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까지 달려간 열혈 바리새파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가르치던 그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²²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²³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²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²⁵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²⁶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행11:22-26).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부른 말이 아닙니다. 교회 밖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처음 전파된 복음은 유대인들 내부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스테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수를 믿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예수님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사울)은 자신의 고향 다소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면서 비로소 유대교의 아류나 유대교 종파 중의 하나가 아닌 전혀 다른 종교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유대교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종교라는 인식이 생겨나면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이 즈음부터 그들에게 본격적인 시련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레이블은 주홍 글씨나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이 모든 일들을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의 흉악범을 처형하는 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아 처형되었다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의 부활도 당연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능력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어진 복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롬 1:16).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하는 이 말이 당시에는 엄청난 용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련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예수라는 말만 꺼내도 죽이려고 달려 들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살던 공동체에서 왕따 당하는 것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의 직분이 사회에서의 신분에 버금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러는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 자신을 포장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이 주는 능력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눈물보다는 교회가 주는 단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핍박받는 일은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는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세상과 타협해서 그런 것이지요.

왜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세계 도처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일까요? 만약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정말 우리의 삶이 지금과 같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그들은 애굽 땅을 벗어나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눈 앞에서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을 통해 택한 백성들을 그토록 억압했던 이집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

들은 눈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도 경험했지요. 광야에 들어와서는 마라의 쓴 물이 달게 변하는 것도 경험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로 먹을 것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 율법을 받아 내려올 동안을 참지 못하고 마침내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신들을 인도해 낸 신으로 절하고 숭배한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 당시의 이야기를 잠깐 보지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이 더뎠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 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지 못함이니라 ²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내게로 가져 오라 ³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 오매 ⁴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 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⁵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 의 절일이니라 하니 ⁶이튿날에 그들이 일찌기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출 32:1-6).

그들은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그날에도 그들은 여느 때처럼 만나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금으로 부어 만든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숭배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믿지도 않은 자들이었던 셈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도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조심하십시오. 어쩌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만 머물러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변명할 수 없는 죄 (금요일)

오늘의 본문 (요 15:18~27)

18.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9.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0.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21.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 이니라
22.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23.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24.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25.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 니라
26.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27.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원문이해하기

- (18절) 만약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Εἰ ὁ κόσμος ὑμᾶς μισεῖ)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γινώσκετε ὅτι ἐμὲ πρῶτον ὑμῶν μεμίσηκεν.)
- (19절) 만약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존재한다면 (εἰ ἐκ τοῦ κόσμου ἦτε),
세상이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사랑할 것이다 (ὁ κόσμος ἂν τὸ ἴδιον ἐφίλει)
그러나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존재하지 않고 (ὅτι δὲ ἐκ τοῦ κόσμου οὐκ ἐστέ)
내가 너희를 이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기 때문에 (ἀλλ' ἐγὼ ἐξελεξάμην ὑμᾶς ἐκ τοῦ κόσμου.)
그것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διὰ τοῦτο μισεῖ ὑμᾶς ὁ κόσμος.)
- (20절)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μνημονεύετε τοῦ λόγου οὗ ἐγὼ εἶπον ὑμῖν·)
종이 그의 주인보다 위대하지 않다 (οὐκ ἔστιν δοῦλος μείζων τοῦ κυρίου αὐτοῦ.)
만약 세상이 나를 핍박하였다면 (εἰ ἐμὲ ἐδίωξαν),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καὶ ὑμᾶς διώξουσιν·)
만약 나의 말을 지켰다면 (εἰ τὸν λόγον μου ἐτήρησαν),
그들이 너희의 것들도 지킬 것이다 (καὶ τὸν ὑμέτερον τηρήσουσιν.)
- (21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 모든 일들을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ἀλλὰ ταῦτα πάντα ποιήσουσιν εἰς ὑμᾶς διὰ τὸ ὄνομά μου.)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보내신 이를 모르기 때문이다 (ὅτι οὐκ οἶδασιν τὸν πέμψαντά με.)

- (22절) 만약내가 와서 저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εἰ μὴ ἦλθον καὶ ἐλόλησα αὐτοῖς)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ἀμαρτίαν οὐκ εἶχουσιν)
 그러나 지금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핑계가 없을 것이다
 (νῦν δὲ πρόφρασιν οὐκ ἔχουσιν περὶ τῆς ἀμαρτίας αὐτῶν.)
-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한 나의 아버지를 미워한다 (ὁ ἐμὲ μισῶν καὶ τὸν πατέρα μου μισεῖ.)
- (24절) 만약내가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은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않았다면
 (εἰ τὰ ἔργα μὴ ἐποίησα ἐν αὐτοῖς ἂ οὐδεὶς ἄλλος ἐποίησεν.)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ἀμαρτίαν οὐκ εἶχουσιν)
 그러나 지금 그들은 나와 나의 아버지를 보아왔고 미워해왔느니라
 (νῦν δὲ καὶ ἐωράκασιν καὶ μεμισήκασιν καὶ ἐμὲ καὶ τὸν πατέρα μου.)
- (25절) 그러나 그 결과 그의 율법에 기록된 말이 성취되었다
 (ἀλλ' ἵνα πληρωθῇ ὁ λόγος ὁ ἐν τῷ νόμῳ αὐτῶν γεγραμμένος)
 그들이 이유없이 나를 미워한다 (ὅτι ἐμίσησάν με δωρεάν.)
- (26절) 언젠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옹호자)가 올 때
 (Ὅταν ἔλθῃ ὁ παράκλητος ὃν ἐγὼ πέμψω ὑμῖν παρὰ τοῦ πατρὸς.)
 아버지로부터 진리의 영, 그가 나에게 대하여 증거할 것이다
 (τὸ πνεῦμα τῆς ἀληθείας ὃ παρὰ τοῦ πατρὸς ἐκπορεύεται, ἐκεῖνος μαρτυρήσει περὶ ἐμοῦ.)
- (27절) 그리고 너희도 증거한다 (καὶ ὑμεῖς δὲ μαρτυρεῖτε.)
 왜냐하면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ὅτι ἀπ' ἀρχῆς μετ' ἐμοῦ ἔστε.)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2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가 와서 저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핑계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에는 아주 심오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죄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들이 말하는 죄란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합의한 규칙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면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지요. 따라서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던 시기에도 ‘죄’는 이미 존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들은 죄에 관해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게 가르칩니다. 불교의 영향을 깊이 받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죄의 경중에 따라 율회를 거둬주고 또 심한 죄를 지은 사람은 결국 지옥에 간다고 믿습니다. 게다가 많은 이들이 불교의 지옥과 성경의 지옥을 같은 곳으로 생각하고 또 불교의 극락을 성경의 천국과 같은 장소로 이해하고 있지요.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불교와는 전혀 다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 개념은 불가피하게 인간의 행위를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으로 귀착시킵니다. 그래서 계속 선을 쌓으면 천국으로, 계속 악을 쌓으면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믿게 됩니다. 특히나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말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작은 잘못이라도 저지르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열심히 선을 행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며 헌금도 더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죄의 기준은 행동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위배되는 것이 죄인 것이지요. 아담의 원죄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 모두가 어떤 특정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위배될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죄가 이세상에 들어 왔지요.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원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

이 구절은 원죄를 설명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아담이 한 행위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아담이 바구니로 선악과를 쓸어담아 먹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어긴 아담은 죄를 지은 게 됩니다. 또 다른 예가 사울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을 살려준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람을 살리는 행위가 죄가 됩니다. 이처럼 죄는 어떤 행위 그 자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가 기준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대상은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수많은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매번 그 사실을 철저히 무시했지요.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살인을 한 것도 간음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도덕적으로 흠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인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 내용이 한 번도 바뀌거나 시대에 따라 변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형식만 변해왔을 뿐입니다. 최초의 율법은 선악과입니다. 아담은 그 첫 율법을 지켜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 세상에 죄를 끌어들이고 말았지요. 두 번째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으로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여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선악과 나무를 통한 것도, 돌판에 기록한 것도 인간들은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법이 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첫 번째 율법과 두 번째 율법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실패를 완전히 회복하고 새로운 율법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고 마침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10 장 2~4 절을 보겠습니다.

“²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³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롬 10:2,4).

여기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말은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표하여 율법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셨기에 더 이상 인간들에게 율법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기 여실히 드러

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이런 상태를 연약한 상태, 다시 말해 아예 힘이 없는 무력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⁴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롬 8:34).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율법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율법의 마지막 요구는 ‘죽음’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기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율법의 마지막 요구인 사망까지 받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처음 주신 두 율법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악 기준으로 인해 힘들어 하고 있고 율법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자신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 율법이 하는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로 인해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정죄함이 사라지고 은혜가 지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가 영원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늘 자기 안에 심겨진 율법을 먼저 들여다 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언제나 나의 무력함만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힘을 주면서 해낼 수 있다는 욕망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매달리게 되지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성화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에게 죄에 대하여 핑곗거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이 보내신 그 율법의 완성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대안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완성된 율법이신 예수님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결국 율법 모두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완성되지 않은 율법은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렇기에 그들은 죄인으로 살다가 죄로 인해 죽을 것입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하고 말이지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대가입니다. 당신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지요? 그렇다면 그 은혜 가운데 머무십시오.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 율법에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익를 미워하는 세상 (토요일)

오늘의 본문 (요 15:18~27)

18.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9.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0.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21.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 이니라
22.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23.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24.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25.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 니라
26.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27.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원문이해하기

- (18절) 만약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Εἰ ὁ κόσμος ὑμᾶς μισεῖ)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γινώσκετε ὅτι ἐμὲ πρῶτον ὑμῶν μεμίσηκεν.)
- (19절) 만약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존재한다면 (εἰ ἐκ τοῦ κόσμου ἦτε),
세상이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사랑할 것이다 (ὁ κόσμος ἂν τὸ ἴδιον ἐφίλει)
그러나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존재하지 않고 (ὅτι δὲ ἐκ τοῦ κόσμου οὐκ ἐστέ)
내가 너희를 이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기 때문에 (ἀλλ' ἐγὼ ἐξελεξάμην ὑμᾶς ἐκ τοῦ κόσμου.)
그것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διὰ τοῦτο μισεῖ ὑμᾶς ὁ κόσμος.)
- (20절)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μνημονεύετε τοῦ λόγου οὗ ἐγὼ εἶπον ὑμῖν·)
종이 그의 주인보다 위대하지 않다 (οὐκ ἔστιν δοῦλος μείζων τοῦ κυρίου αὐτοῦ.)
만약 세상이 나를 핍박하였다면 (εἰ ἐμὲ ἐδίωξαν),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καὶ ὑμᾶς διώξουσιν·)
만약 나의 말을 지켰다면 (εἰ τὸν λόγον μου ἐτήρησαν),
그들이 너희의 것들도 지킬 것이다 (καὶ τὸν ὑμέτερον τηρήσουσιν.)
- (21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 모든 일들을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ἀλλὰ ταῦτα πάντα ποιήσουσιν εἰς ὑμᾶς διὰ τὸ ὄνομά μου.)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보내신 이를 모르기 때문이다 (ὅτι οὐκ οἶδασιν τὸν πέμψαντά με.)

- (22절) 만약내가 와서 저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εἰ μὴ ἦλθον καὶ ἐλόλησα αὐτοῖς)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ἀμαρτίαν οὐκ εἶχουσιν)
 그러나 지금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핑계가 없을 것이다
 (νῦν δὲ πρόφρασιν οὐκ ἔχουσιν περὶ τῆς ἀμαρτίας αὐτῶν.)
-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한 나의 아버지를 미워한다 (ὁ ἐμὲ μισῶν καὶ τὸν πατέρα μου μισεῖ.)
- (24절) 만약내가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은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않았다면
 (εἰ τὰ ἔργα μὴ ἐποίησα ἐν αὐτοῖς ἂ οὐδεὶς ἄλλος ἐποίησεν.)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ἀμαρτίαν οὐκ εἶχουσιν)
 그러나 지금 그들은 나와 나의 아버지를 보아왔고 미워해왔느니라
 (νῦν δὲ καὶ ἐωράκασιν καὶ μεμισήκασιν καὶ ἐμὲ καὶ τὸν πατέρα μου.)
- (25절) 그러나 그 결과 그의 율법에 기록된 말이 성취되었다
 (ἄλλ' ἵνα πληρωθῇ ὁ λόγος ὁ ἐν τῷ νόμῳ αὐτῶν γεγραμμένος)
 그들이 이유없이 나를 미워한다 (ὅτι ἐμίσησάν με δωρεάν.)
- (26절) 언젠가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옹호자)가 올 때
 (Ὅταν ἔλθῃ ὁ παράκλητος ὃν ἐγὼ πέμψω ὑμῖν παρὰ τοῦ πατρὸς.)
 아버지로부터 진리의 영, 그가 나에게 대하여 증거할 것이다
 (τὸ πνεῦμα τῆς ἀληθείας ὃ παρὰ τοῦ πατρὸς ἐκπορεύεται, ἐκεῖνος μαρτυρήσει περὶ ἐμοῦ.)
- (27절) 그리고 너희도 증거한다 (καὶ ὑμεῖς δὲ μαρτυρεῖτε.)
 왜냐하면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ὅτι ἀπ' ἀρχῆς μετ' ἐμοῦ ἔστε.)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3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한 아버지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 유대인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아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떠받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모독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서든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지 연구했고, 아주 상세한 행동 지침까지 마련하여 가르치며 또 그대로 지켰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하기 전에 몸을 씻는 규정, 주방의 식기를 씻는 규정까지 만들어서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다면 이들이 그렇게 애써 규정을 만들고 또 그것을 지키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예수 공동체와 그런 문제로 인해 충돌이 잦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율법을 아주 세세하게 만들어 지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모두 정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명목하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나님을 죽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길까를 고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요? 그렇다면 이들이 그토록 목숨 걸고 섬긴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만약 그들이 하나

님을 올바로 알았다더라면, 그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아들 하나님을 결코 그렇게 무참히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신령한 체험이나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작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습득하는 지식과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병을 허락하셔서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알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런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지요.

또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기 위해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둘 때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집요하게 자신을 추격하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며 절호의 기회를 두 번이나 접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밧세바를 범할 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하지 않고 방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스스로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율법적으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참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은혜를 경험하고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²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³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셀라)⁵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셀라)”(시32:1-5).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다윗은 자신이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본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사울 왕보다는 훨씬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졌지요. 그런데 그는 하루 아침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무릎꿇습니다. 그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범하는 것을 그대로 허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그 삶을 통해 자신의 의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24~25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과 가르침을 통해 자신을 계시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유대인 종교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위선과 교만이 폭로 당합니다. 돌비에 새긴 율법이 아닌 진정한 율법 앞에 섰을 때 그들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로 생각되었을까요? 그래서 그

들은 예수님만 죽이면 된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영원히 감출 수 있으리라 여겼던 거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이 주시는 그 의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자신들의 내면의 더러움을 비추는 거울이었으니까요. 더러운 것을 비춰주는 거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더러움 그 자체가 문제인데 말이지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살면서 뜻하지 않게 자신의 가식이나 위선이 폭로될 때 공연히 다른 이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은 자신에게 있는데 그것을 직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꿇기보다 자신의 추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 적반하장격으로 상대방에게 애매한 화살을 날리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지만 다행히도 우리에게 이런 죄된 모습이 세상에 폭로될 때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 안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전혀 실수를 안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할지라도 눈물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26~27 절은 앞에서 다루었으므로 생략합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